■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817-829.
http://doi.org/10.17948/kcs.2022..94.817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五家詩摘句』해제*

김영진(金榮鎭)**

1.

『五家詩摘句』는『The Asami Librar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Oga si chokku五家詩摘句. N.d. 1 folding book. Manuscript.
> An Album of the accordion type containing choice lines from poems of five authors of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The first author was the calligrapher's own father. The calligrapher id entifies himself as Yusu酉叟 ; there is a preface dated muo戊午 year by one Agok雅谷, who was then seventy-six years old. The other four aut hors re Yi So-gu李書九, Pak Che-ga朴齊家, Yu Tuk-kong柳得恭, and Yih ak-kyu李學逵.[1]

---

* 이 해제는 김영진,「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五家詩摘句』」,『고전과해석』창간호,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6을 수정한 것임.

** 성균관대 한문학과 부교수.

1) *The Asami Librar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368면. 아사미문고에는 정약용의 많은 저작들과 함께『詩名多識』등도 전하고 있는데 저자인 정학유가 소장한 原本으로추정된다. 이 책은 4권2책으로, '劬經堂藏板'이 版心에 찍힌 絲欄空卷에 필사되었고, 정학연의 서문은 隸書로, 苕湖田夫의 跋은 草書로 쓰였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중국계 학자인 房兆楹(ChaoYing Fang)씨가 아사미문고 소장본들을 정리한 위의 책을 접하고 여기 소개된 여러 자료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위의 方氏의 해제에 소개된『五家詩摘句』의 編者 '酉叟'는 바로 다산의 장남 酉山 丁學淵(1783-1859)이다.

우선 본서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크기 23.3×13cm. 1帖. 표지는 나무로 되어 있고 白雅老樵 題籤('白雅谷樵夫' 도장 1과)으로 '五家詩摘句'라 쓰여 있다(그림 1). 이 책은 帖裝本이어서 張數를 말하는 것이 타당치는 않으나 두 면을 한 장으로 헤아리면 총 20장이다. 표지 제첨부터 본문까지 모두 정학연의 친필(行書)이다.『五家詩摘句』와 동일한 정학연의 친필 帖裝本으로『文房帖』(그림 8 참조, 권도홍씨 소장)[2] 등이 따로 있다.

본서 1장-ab면, 2장-a면(그림2, 그림3)에 걸쳐 題가 있는데 끝에 "戊午中春下澣雅谷七十六叟漫筆"(끝 '學淵印' 인장 1과)이라 되어 있다. 戊午는 1858년으로 정학연 76세 때이다. 雅谷은 白雅谷으로, 경기도 광주(현 남양주시) 마재의 茶山 鄕邸 인근의 지명이다.

이하 2장-b면부터 20장-b면까지 5인의 시 총 71聯 142句가 摘句되어 있다. 2장-b면에서 3장-b면까지 정약용의 시구가 뽑혀있는데 끝에 "右家大人詩集摘句 酉叟書"(끝 '酉山居士' 인장 1과)라 되어 있다(그림 4). 4장-a면부터 6장-b면까지 이서구의 시구가 뽑혀 있다.(끝에 "右薑山李相國詩"라 되어 있다) 7장-a면부터 14장-b면까지 박제가의 시구가 뽑혀 있고 ("右朴貞蕤齊家詩句"), 15장-a면부터 19장-a면까지 유득공의 시구가 뽑혀 있고("右柳泠齋得恭詩句"), 끝으로 19장-b면에서 20장-b면까지 이학규의 시구가 뽑혀 있다("右李洛下學逵詩句").

본서에 찍힌 4과의 인장 가운데 '白雅谷樵夫', '酉山居士' 印은 정학연이 자주 사용하던 인장이다. 정학연이 石農 李鍾愚에게 부친 서한(그림 5)에 '白雅谷樵夫' 印이 찍혀 있고, 1853년 가을 정학연이 明 鄭暄의『昨非庵日纂』을 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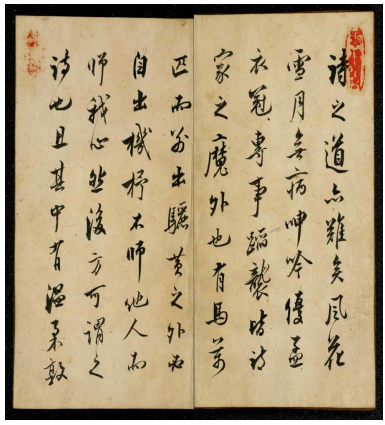
2) 권도홍,『文房淸玩』, 청산, 2003. 106-107면에『文房帖』의 사진 및 번역문이 실려 있다. 권도홍씨는 정학연의『柳絮帖』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여 松隣 申郎[3]에게 준 필첩(그림 6, 그림7. 순천대박물관 소장)[4]의 끝에는 정학연과 그 아들 蓮史 丁大林(1807-1895)이 사용했던 인장들이 다수 찍혀 있는데 위의 두 인장 역시 이 안에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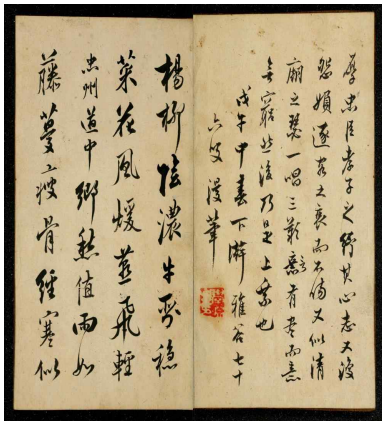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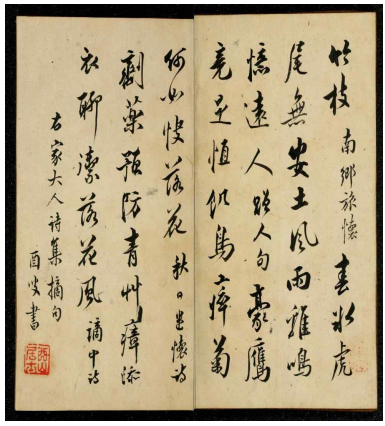
〈그림 1〉『五家詩摘句』표지



〈그림 2〉『五家詩摘句』1장



〈그림 3〉『五家詩摘句』2장



〈그림 4〉『五家詩摘句』3장

3) 정학연의 손녀사위 申培模 또는 申鶴求로 추정됨.
4) 이 자료는 성균관대 한영규 선생님이 알려준 것이다. 감사를 드린다.

정학연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소개는 이미 다른 논문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5] 이 글에서는 『오가시적구』에 집중해서 논의한다.

본서의 앞에는 서문격이라 할 수 있는 정학연의 題가 붙어있다. 다음과 같다.

> "詩의 道 역시 어렵도다. 바람과 꽃, 눈과 달, 病도 없이 呻吟하는 것, 優孟이 남의 衣冠을 흉내 내는 것, 오로지 蹈襲을 일삼는 것 등은 모두 詩家의 마귀이다[6]. 말이 만 필 있어도 검고 누런 준마가 특별히 나오듯, 반드시 스스로의 機杼에서 나와 남을 스승 삼지 않고 나의 마음을 스승 삼은 연후에 바야흐로 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가운데 溫柔敦厚와 忠臣孝子의 그 心志를 펼치는 것, 또 원망하는 아낙과 쫓겨난 신하의 슬퍼하되 상하지는 않는 마음, 또 청묘를 노래할 때의 큰 거문고와 같이 一唱三歎하는 것이 있어 말은 다 함이 있되 뜻은 다함이 없는 연후에야 上乘이라 할 수 있다."[7]

타인에 대한 模倣과 蹈襲을 배격하고 나의 마음을 스승 삼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온유 돈후의 풍격, 충신 효자의 마음, 怨婦와 逐臣의 슬픔의 감정, 淸廟의 연주 등을 갖추되 뜻은 무궁한 것이 詩家의 上乘이라는 것이다.

---

5) 김영진, 「酉山 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一考」, 『다산학』 12,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김영진, 「酉山 丁學淵의 회인시 연구—『秋日懷人絶句十一首』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40, 한국시가학회, 2016; 김영진, 「酉山 丁學淵 詩集 異本攷」, 『한문교육연구』 46,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 김영진, 「유산 정학연 시집 이본고 (2)—추가 발굴 시집 2종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硏究』 52, 한국시가학회, 2021. 이 외에 임형택, 「다산 정약용과 강진」, 74회 강진다산강좌 발표문, 강진군, 2005.5.24;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일조각, 1996; 심경호 외, 『북한강 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 출판부, 1998; 조성을, 『與猶堂集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2004; 노경희,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본 정학연 시집 『三倉館集』의 영인 및 해제」, 『다산학』 6, 다산학술재단, 2005; 신익철, 「시선집 『鮮音』과 정학연 가을 연작시의 정서」, 『장서각』 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신익철 해제, 『宅相堂帖丁黃契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진재교, 「다산학의 형성과 치원 황상」,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이철희, 「다산 시학의 계승자 黃裳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秋史·山泉의 〈치원유고서〉 분석」,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안대회, 「다산 제자 李綱會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 10, 한국실학학회, 2005; 김형태, 「『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등 참조.

6) 이는 천마외도(天魔外道)의 준말로 불도(佛道)를 흔들어 방해하는 마귀를 말한다.

7) 詩之道亦難矣. 風花雪月, 無病呻吟, 優孟衣冠, 專事蹈襲, 皆詩家之魔外也. 有馬萬匹而別出驪黃之外, 必自出機杼, 不師他人, 而師我心, 然後方可謂之詩也. 且其中有溫柔敦厚, 忠臣孝子之紓其心志, 又復怨婦逐臣之哀而不傷, 又似淸廟之瑟, 一唱三歎, 言有盡而意無窮, 然後乃是上乘也.

이러한 시관을 가지고 이 책의 구절들을 뽑은 것이다.

이 책에는 정약용・이서구・박제가・유득공・이학규 등 5인의 7언율시 가운데 頷聯 또는 頸聯을 뽑았다. 漢詩 중 聯句를 뽑아 책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되었다. 일본의 경우 10세기 무렵 唐詩(신라인 포함)의 聯句를 내용으로 分門하여 만든『千載佳句』가 편찬되었고,[8]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百聯抄解』등이 있다.[9] 그러나 이 경우의 聯句는 꼭 律詩의 頷, 頸聯만 뽑은 것은 아니다. '摘句'라는 말은 '摘句圖'에서 기원한 것으로 淸 王士禛(1634-1711)이 施閏章(1618-1683)의 시를 좋아하여 5언율시 82句을 摘錄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0] 왕사정을 가장 먼저 수용한 사람 중 한 명인 이덕무의『淸脾錄』에도 동시기 시인들의 聯句 또는 摘句를 대량 수록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 역시 이런 것에 영향받아 옹방강의 시를 摘句한『覃詩摘句』등을 편찬하였다. 정학연과 김정희의 교유는 20대에 형성되어 만년까지 이어진 바 문학과 학술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 시구를 뽑아 완상하고 선집을 만드는 적구 애호는 다른 시대와 변별되는 중요한 문학적 특징이다.[11]

---

8) 박노춘,「『千載佳句』소재 신라문인의 시작품」,『어문연구』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5.

9) 조창록,「조선조 한시 교육의 실제와『백련초해』」,『대동한문학』21, 대동한문학회, 2004.

10) 王士禛,「摘句圖」,『池北偶談』권13(목판본, 수경실소장) 이하 박철상,「추사 김정희의 저작 현황 및 시문집 編刊에 대하여」,『대동한문학』25, 대동한문학회 2006.12, 15-16면에서 인용. 박철상,「추사 김정희의『復初齋詩集』수용과『復初齋摘句』의 편찬」,『추사연구』7, 추사연구회, 2009 참조. "이 시들은 제목은 물론 출처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시운장 詩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왕사정의 심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사는 바로 왕사정의 先例를 보고 옹방강의 시가에서 7언시를 뽑아 옹방강 시가의 '摘句圖'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책의 존재에 관해서는 신관호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나는 일찍이 覃谿의 시중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왕사정의 '摘句圖' 형식을 모방하여 거의 100句나 되는 시들을 摘錄하였다.)에 나타나 있다. 또한 吳進士에게 보낸 편지에도 '摘句圖'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추사가『覃溪摘句』를 만든 사실이 확인된다. 추사는 옹방강의 시론을 수용하여 당시 조선의 학계에 전파하였으며, 그중에서 紫霞는 추사를 통해 옹방강의 시론을 수용한 뒤 옹방강의 시론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覃溪摘句』에는 모두 124句의 옹방강 시귀가 남아 있는데, 추사의 친필로 보기는 어렵고 후대의 轉寫本이다. 또 개인 소장본도 있는데 여기에는『翁覃溪百句詩抄』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하단에는 '秋史選'이라는 말이 있다. 이 역시 후대 전사본이다. 특히 이 책에서 '백구시초'라 한 것은 신관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의 100구나 되는 시구를 초록했다'는 말과도 일치한다."

11) 자하 신위의『당시화보』에도 당시 적구도가 실려 있다. 조수삼의〈葉東卿主事 二首〉두 번째 시

본서에 실린 5인 시의 摘句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각 개인의 문집에 수록된 詩題이고 * 표시는 柳琴(1741-1788)이 편찬한 四家詩選集『韓客巾衍集』수록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정약용

「忠州道中」(「留題族父海左翁山居」), 「南鄕旅懷」(「新年得家書」壬戌春在康津), 「贈人」(「忽漫」), 「秋日遣懷」(「松坡酬酌」), 「謫中」

이서구

*「初夏」(「生香館初夏」), 「送人關西」, *「秋夕」(「夕後書字」), *「狎鷗亭」(「望狎鷗亭」), *「餐綠亭雨後」(「餐綠亭雨後」), *「湖上急雨」(「湖上急雨有懷仲牧」), *「小晴卽事」(「小晴卽事寄葛川故人」), *「屋東門小立懷人」(「早從屋東門小立溪上懷人」), *「秋廬卽事」二聯(「秋廬卽事有懷仲牧」), *「野亭晩行」二聯(「野亭晩行」)

박제가

「筆溪夜坐」(「筆溪夜坐次任弘常毅之」), 「立春日觀齋賦」(「立春詩爲觀齋賦二首」), 「秋懷」二聯(「秋懷六首」), *「北漢」二聯(「踰文殊門」/「扶旺寺夜逢李儒東次杜」), *「白雲臺絶頂」(「登白雲臺絶頂」), 「夜坐」二聯(「淸受屋夜坐六首」), *「曉渡銅雀」(「曉渡銅雀津」)『한객건연집』과 출입 多, 「過振威」(「振威」), 「素沙」(「素沙二首」), *「店壁」(「題店壁), 「眞樹亭」(「越眞樹亭」), *「葛山店曉雨」(「葛山店舍曉雨」)『한객건연집』엔 「萬山店舍曉雨」로되어 있음. 「宿李十三」二聯(「免喪後往謁李丈燾苦勸余以詩云不見子落筆久矣 使其子十三伴宿四首」), 「次翠眉」(「次韻翠眉」), *「心溪艸堂」二聯(「信宿李處士光錫心溪艸堂九首」), *「農村九日」(「九日次杜」)『한객건연집』엔 「玄竹里九日次杜氏秋興」으로 되어 있음. *「上仝」二聯(「次杜示李宜菴六首」)『한객건연집』엔 「踰一岡有京中故人農庄相訪作次杜」(5수) 「村中人携酒來別次前韻」(1수)으로 나뉘어 있음. 「出黃精坪」(「出黃精坪」), 「暮訪麝泉」(「暮訪麝泉」), 「次薑山」(「人日

에 도"佳兒亦復承庭訓, 東國新傳摘句圖."라는 내용이 보여 섭지선의 적구도가 조선으로 유입된 정황이 보인다.

立春偕薑山賦」), 「平壤」(「平壤」), 「分院舟行」, 「蕈潭」(「蕈潭」), 「白雲寺」(「白雲寺」), 「谷雲影堂」, 「萬歲橋」

유득공

「桃花洞」(「桃花洞獨遊二首」), *「麻浦」, *「熊州館歲暮」二聯(「熊州館歲暮五首」), 「弓院道中」(「弓院野中」), 「與芝圃話舊」(「夜坐與芝圃子話舊八首」), *「貞西夜集」(「貞西夜集」), 「江都」(「江都雜感四首」), 「江上姨弟舍」二聯(「人日江上姨弟舍」), 「秋詩和薑山」六聯(「秋詩六首和薑山」)

이학규

「三山草閣」(「許景瞻三山草閣」), 「許山人草堂」(「從許山人草閣步至郭老書屋, 戲贈權子相」), 「台亭早秋」二聯(「次韻權處一台亭早秋」), 「西城聞雨」(「戲柬李石扇希吉鏗」), 「金海官池」(「涵虛亭, 贈鄭日汝使君」)

본서에 뽑힌 5인은 부친 정약용과 인척 이학규의 시 외에, 四家詩人 가운데 3인이 수록되었다. 부친의 시를 가장 앞에 놓고, 나이가 가장 어린 이학규를 끝에 포치하였다. 사가시인 중 이서구만이 유일한 양반이자 재상의 반열까지 올랐기에 사가시인 중 가장 앞에 포치시켰다. 정학연의 詩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정약용과 이학규의 시가 사가시인 3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뽑힌 것은 의외다.

박제가와 유득공의 경우는 부친 정약용이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이 둘의 시를 애호하였기에 정학연이 이 둘의 시를 선발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학규 역시 인척으로 한평생 가까운 사이였기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서구의 시를 선발하고도 같은 사가시인인 이덕무의 시를 싣지 않은 이유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시의 품격이나 취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가시인의 시는 이들이 생존했던 18세기는 물론, 19세기에까지 詩壇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더구나 정학연의 교유에는 김정희를 비롯하여 자하 신위 및 그 제자들(박영보, 남상교, 권영좌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학

연의 사가시 애호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위의 摘句로 보건대 정학연은 사가시를 『한객건연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시집 全藁를 가지고 뽑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본서에 실린 모든 摘句들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고, 다만 정약용의 적구만을 논하고자 한다. 본서의 다산시 摘句는 『여유당전서』의 詩題와는 출입이 많다. 본서 「忠州道中」의 摘句 "楊柳陰濃牛臥穩, 菜花風暖燕飛輕."은 『여유당전서』의 「留題族父海左翁山居」 제3수의 함련이다. 1796년 4월 정약용이 先塋이 있던 충주에 가는 도중 원주의 해좌 정범조 집에 들러 지은 작품이므로 시 제목의 출입에 큰 의미는 없다. 「南鄕旅懷」의 摘句 "鄕愁値雨如藤蔓, 瘦骨經寒似竹枝"는 문집에 실린 「新年得家書」 제1수의 함련이다. 제목 아래 "壬戌(1802)春, 在康津"이란 주석이 있다. 역시 제목의 출입에 의미 차이는 없다. 「贈人」의 摘句 "春氷虎尾無安土, 風雨鷄鳴憶遠人."은 문집에 「忽漫」으로 된 작품의 함련이다. 이 작품의 경우 첫 구절이 '忽漫看花淚滿巾'으로 시작하기에 문집의 「忽漫」은 임시방편으로 붙여진 제목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끝에는 "少陵嘗云'儉夫購我以千金', 余曰: '某可得五百金購乎?' 相視大笑."(소릉이 일찍이 말하기를 '간사한 사내가 나를 천금으로 사려 한다네.' 내가 말하기를, '그럼 저는 500금으로 살 수 있겠군요.'라 하고 서로 크게 웃었다)라는 주석이 있다. 이 시는 1809년 작으로 이미 작고한 금대 이가환을 추억하며 유배지에서의 처연한 심경을 읊은 작품이다. 「秋日遣懷」의 "豪鷹竟是恒飢鳥, 悴菊何如快落花."는 『여유당전서』 내〈松坡酬酌〉 小集 가운데 「幽事」 제2수의 함련을 摘句한 것으로 1828년 무렵의 시이다. 마지막에 실린 「謫中」의 "劑藥預防靑艸瘴, 添衣聊禦落花風." 摘句는 『여유당전서』에는 보이지 않는 시이다. 『여유당전서』에는 1810년 6월 이후부터 1818년 解配 歸鄕까지의 시가 빠져 있다.[12] 혹 이 기간의 작품일지 모르겠다. 시구가 특히 빼어나서 작품이 현

12) 『여유당전서』 편찬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미상이다. 이 때문에 이 시기(1810-18년) 정약용의 逸詩들이 발굴되기도 한다. 1810-18년 이외의 시기에 지어진 시도 문집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종종 발굴되는데, 임형택에 의해 발굴된 「道康薈家婦詞」도 이런 경우이다.[「소경에게 시집간 여자(道康薈家婦詞)」, 『창작과비평』 62, 창작과 비평사, 1988. 겨울.]

재 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잘 맞춰진 대구를 뽑은 것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다산시 摘句를 통해 볼 때, 정학연이 題에서 말했던 '逐臣의 哀而不傷의 감회'를 보이는 시구도 이처럼 확인할 수 있다.

3.

본서는 정약용의 장남 정학연이 편찬한『五家詩摘句』를 살펴본 것이다. 정학연은 19세기 한시사, 학술사 등과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이다. 아직 자료의 수집과 정리, 검토가 총체적으로 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연구에 제약이 된다.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을 摘示하면서 향후 과제로 삼아볼까 한다.

다산의 강진 유배기에 형성된 근 20여 명의 '다산학단'[13]은 위대한 실학자 다산의 학술, 문학의 繼承과 轉變이란 측면에서 19세기 지성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이 학단의 중추적 역할을 한 이가 다산의 두 아들 丁學淵(1783-1859)과 丁學游(1786-1855)다.

추사 김정희는 "정학연이 왔다 가면 단지 한 사람이 왔다 갔을 뿐인데 여러 명이 오간 것 같은 느낌이다."(홍길주,『睡餘放筆』)라는 말을 했다. 정학연의 다방면의 박학이 이런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친 정약용의 학문과 문학을 어느 누구보다 살뜰히 전수받았을 정학연은 이미 30대 초반부터 詩로, 醫術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의 嫡傳일뿐만 아니라 김정희, 신위, 서유구, 홍길주 등 19세기 學團 및 詩壇의 쟁쟁한 인물들과의 폭넓은 교유는 그 학술·문학의 실상에 대한 世人들의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일단 詩學과 實用學이 주목되는데 전자의 경우① 다산 시(학)와의 계승과 변화, ② 추사자하 유파와의 교섭[14]이, 후자의 경우 醫學·農學(특히 달성서씨

13) 임형택,「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한국한문학연구』21, 한국한문학회, 1998.

14) 앞서 본대로 정학연·초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洌上詩社'에는 신위·남상교·홍현주 등 이 시기의 대표적 시인들이 대거 포진하였다는 데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이 詩社 참여원들의 詩世界 연구를 통해 19세기 초의 '神韻' 지향의 한시 경향이라던가, 南人詩脈 및 茶山詩學의 후대적 변모 또는 계승양상 등을 살필 수 있기에 19세기 漢詩史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학연의

가와의 연결)이 그것이다.

정약용과 홍석주, 김매순, 이재의 등 노론계 학자들과 신작 등의 소론계 학자들의 학술 교유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 충실히 소개되어 있다.20) 다만 다산의 경우 학술로 연구가 편중되어 문학 부분, 특히 解配 이후의 문학 교유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의 歸鄕을 계기로 정학연·학유 형제를 비롯한 '다산학단' 구성원들과 서울·近畿 지역의 학인·문사들과의 교유는 매우 활발해졌다. 그 교유의 실상 및 문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산학단' 구성원 가운데 시문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정학연의 교유와, 해남·강진의 초의·황상·이청·이강회 등이 서울의 학인·문사들과 맺은 교유 양상을 살핌으로써 유배지에서 꽃피웠던 다산학이 어떻게 서울·근기로 연결 또는 확장되는지 고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에 소개된 다산과 근기학인과의 교유에 대해서도 가문 및 인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교유 및 상호간 영향 관계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다산학단'의 문학 또는 학술교유는 한강 인근에 거주한 인물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근 집안을 살펴보면 달성서씨가(徐有榘 등), 안동 김씨가(金履陽 金賢根 祖孫, 金邁淳), 평산신씨가(申緯, 申綽, 申弼永, 申耆永), 풍산홍씨가(洪奭周 3형제 및 子姪), 고령박씨가(朴鍾林, 朴永輔 父子) 등이 있다.

'다산학단'의 중요한 구성원들인 황상, 이청, 이강회의 경우, 만년에 모두 서울에 올라와 교유한 흔적이 확인된다. 황상은 1836년, 1845년, 1855년 서울을 왕래하였고, 이청은 중년 이후 아예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다. 이청은 이 무렵 천문역법, 지리학 등에 관심을 두면서 서유구가와도 가까이 교유했다. 徐浩修·徐有本으로 내려오던 달성서씨가의 천문수리학이 '다산학단'과 遭遇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또 황상과 이청은 추사 김정희와의 교분으로 인해 추사의 제자들인 李尙迪, 閔奎鎬, 南秉哲 등과도 절친히 교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요컨대 '다산학단' 구성원과 洪奭周家, 徐有榘家, 申綽家, 金正喜家, 金邁淳家 등 19세기 서울·근기 학인·문인 간의 교유 양상은 이 시기 학술사,

시를 두고, 남병철은 사령운과 노조린을 언급한 바 있고, 홍길주는 송나라의 시인인 진관과 유영을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시세계에 대한 한 示唆가 될 만하다.

지성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다산학단'을 통해 해남·강진과 서울·근기 지역이 학술, 종교,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왕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초의, 許鍊, 이청의 행적이 특히 주목된다. 18세기 이래 京鄕 分岐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이들의 활약이 일정하게나마 京鄕 疏通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19세기 우리 지성사 이해를 보다 풍성히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제 양상들의 한 가운데 정학연이 위치하고 있음을 우선 언급해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丁學淵 編,『五家詩摘句』1帖,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丁學淵 筆,『昨非庵日纂抄』, 순천대박물관 소장.
柳琴 編,『韓客巾衍集』, 필사본 1책, 修綆室 소장.
이덕무 저,『淸脾錄』.
정약용 저,『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민족문화추진회.
이서구 저,『薑山全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박제가 저,『貞蕤閣集』, 한국문집총간 261, 민족문화추진회.
유득공 저,『泠齋集』, 한국문집총간 260, 민족문화추진회.
이학규 저,『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민족문화추진회.
The Asami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다산정약용선생유물특별전 블로슈, 다산유물전시관, 2005.8.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제2회) 다산정약용선생유물특별전 블로슈, 다산유물전시관, 2006.10.
권도홍,『文房淸玩』, 청산, 2003.
박노춘,「『千載佳句』소재 신라문인의 시작품」,『어문연구』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5.
임형택,「소경에게 시집간 여자(道康聟家婦詞)」,『창작과비평』62, 창작과비평사, 1988, 겨울.
_____,「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한국한문학연구』21, 한국한문학회, 1998.
_____,「다산 정약용과 강진」, 74회 강진다산강좌 발표문, 강진군, 2005.5.24.
김문식,『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일조각, 1996.
심경호 외,『북한강 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 출판부, 1998.
조성을,『與猶堂集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2004.
조창록,「조선조 한시 교육의 실제와『백련초해』」,『대동한문학』21, 대동한문학회, 2004.
노경희,「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본 정학연 시집『三倉館集』의 영인 및 해제」,『다산학』6, 다산학술재단, 2005.
신익철,「시선집『鮮音』과 정학연 가을 연작시의 정서」,『장서각』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신익철 해제,『宅相堂帖丁黃契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진재교,「다산학의 형성과 치원 황상」,『대동문화연구』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이철희,「다산 시학의 계승자 黃裳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秋史·山泉의 〈치원유고서〉 분석」,『대동문화연구』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안대회,「다산 제자 李綱會의 이용후생학」,『한국실학연구』10, 한국실학학회, 2005.
김형태,「『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한국시가연구』21, 한국시가학회, 2006.
박철상,「추사 김정희의 저작 현황 및 시문집 編刊에 대하여」,『대동한문학』25, 대동한문학회, 2006.
_____,「추사 김정희의『復初齋詩集』수용과『復初齋摘句』의 편찬」,『추사연구』7, 추사연구회, 2009.
김영진,「酉山 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一考」,『다산학』12,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_____,「酉山 丁學淵의 회인시 연구—『秋日懷人絶句十一首』를 중심으로—」,『한국시가연구』40, 한국시가학회, 2016.

_____,「酉山 丁學淵 詩集 異本攷」,『한문교육연구』46,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
_____,「유산 정학연 시집 이본고 (2)—추가 발굴 시집 2종을 중심으로—」,『韓國詩歌硏究』52, 한국시가학회, 2021.